

59 數字朝鮮研究
(수자 조선 연구)

이 책은 1933년 ~ 1935년 사이에 1~5 輯
(집) 까지 총 5 冊 내었다 저자는 황희물
(이여삼)과 송세룡(김세용) 두분의 공동
저서이다 김세용씨는 저를 모르겠으나
이여삼씨는 <弱小民族運動(약소민족운동)
의 전망>이란 저서와 <아일랜드의 민족운동>

이런 책을 내었기에 특히 약소민족운동의
 전망గు은 인은. 안습. 이집트. 티베트. 유태 밋
 흑인 등 세계 중요 약소 민족의 현지를 순
 방하고 쓴 책이다

叢書 朝鮮研究(수라 조선 연구)는 제 5집
 까지 출간 했는데 말하자면 서민 통치
 하의 가치고, 이집고, 가난하고, 못사는
 우리네 사정을 속자로 밝히자는데 본
 뜻이 있는것 같다

전라북도 머리말에기 조선은 정치적 특

수 지역인 만כן 통제에 돈 이 중성이 있나
 는 말을 하고 있고 알제의 영한 ²감역
 의 랫인지 『차간(此間) 13行(행) 田畝(밭)』이라
 된가 『이하 5행승략』 이란 것이 많이 빈인
 다 또한 이 책을 영이 내는 데는 친우 高
 花相(고재욱) 씨의 많은 원조가 있었다 한다

1931년 9월 해제 조선의 窮民(중민) 현
 황을 보면 道(도)별로는 충청남도 가 주
 마의 65%로써 수위를 차지 하였고 전라북
 도는 46%로써 2위이며 충청북도 전남은

30% 이하 3위인 경북 경기 함남은 각 26%

이로 평남은 20% 이고 평북과 강원은

18% 경남 15% 황해도 14% 더 순이다

이것을 다시 분석하면 조선의 총공민

수는 543만 8천여 명인데 이 가운데 겨우

연명해가는 공민(窮民)의 수가 412만 명

이다 이 가운데 남의 간음구제가 없으

면 산수 있는 사람이 104만 8천여 명이고

먹인(飢民)이 13만 6천 명에 달하고 있다

이 먹인을 $1\frac{9}{26}$ 배에 1만여 명에 불과

하얏던 것이 45년 후인 1931년에 16만~~명~~

3.753만으로 줄어 남으로는 전 인구의 0.8%

를 점하였다는 사실이 다

1930년 10월 1일 국제조사에 의하면 文
盲率(문맹률)이 96%로 되어 있으며 叢書(저자)

는 약 80%로 추정하고 있다

한편 제 4집에는 해외 유학생 통계가

있고 1931년 현재 해외 유학생 총수는

4,500명인데 이 중 일본 유학생이 3,639

명으로 전체의 80%를 차지하고 있다

2위권 미족 우수생인 데 11%에 해당 하는

493명이 고 중족 우수생은 8%에 해당 하는

368명이 불과 하다

일본 우수생의 전공을 보면 법학이 1위 이

고 문학이 2위 이고 3위권 경제학으로

되어 있다

제 5집계는 말버거는 우리 나라 도시 발전

의 한계점을 열거 하고 있는데 천도민족

이전 계는 타당 한 것 같았으나 1930년대 이후에

는 특이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